



〈예수 성탄〉, 12세기, 모자이크, 팔라틴 경당, 팔레르모, 이탈리아

작은 경당의 한쪽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이 작품에는 성탄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이 묘사되어 있다. 아기 예수님은 바위산의 어두운 동굴 앞에 놓인 구유에 누워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잠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참 빛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왼쪽의 요셉은 아기의 탄생에 담긴 하느님의 깊은 뜻을 묵상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 위에는 세 명의 동방박사들이 하늘에 있는 별의 인도를 받아 예수께로 오고 있으며 맞은 편에는 그들이 아기에게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땅에서는 시종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씻어주기 위해 석조 그릇에 물을 붓고 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마태 1, 23)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우리과 같은
사람이 되셨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온 세상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닫혔던 구원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다시 활짝 열려 모든 인간은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탄생은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까?

그런데 이천년 전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간의 생 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한 소박한 시골마을에 서 이루어졌습니다. 더구나 그분은 아주 여리고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에 인간에 대한 하느님 구원의 계시와 무한한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홀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시기 위해 오 신 분입니다(루카 1, 51-52).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필리 2, 7). 따라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가 난하고 불쌍하고 억울하고 소외된 이웃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 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누워계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에서 인간 생명의 소중 함과 존엄성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생명은 예외 없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귀한 것이며 인간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 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생명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거부되는 행태가 너무 많아 안타깝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 혼과 낙태, 자살률은 매년 높은 수치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1960년 대 이후 경제발전을 위해 무분별하게 실시한 산아제한 정책으로 현재 우

리나라는 세계에서 대표적인 저출산국이 되었습니다. 인간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는 단지 태어나지 않은 생명에 대한 공격뿐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폭력과 비인간적인 범죄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생명윤리법은 난자매매를 실질적으로 허용하여 결과적으로 비윤리적인 인간 배아 연구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존중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우리 가정 공동체의 와해 현상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만 좋아지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해결될 것이란 헛된 기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황금만능주의는 인간을 극도의 이기주의로 내몰고 세상을 갈등과 투쟁의 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인간은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마태 4,4).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다른 이의 인격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다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기심이나 소유욕에 지배되지 않고 고통 받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으며 어떠한 생명도 소외되거나 경시되지 않는 건강하고 바람직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도자들의 책임이 더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들은 항상

국민들의 소리를 귀담아듣고 국민이 공감하고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모범적인 삶을 통해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지도자들이 갈등보다는 관용, 대립보다는 통합을 중시하는 상생의 정신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국민에 대한 봉사의 임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본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상 구원의 봉사자가 되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도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고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는 삶을 살 때 바로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새롭게 탄생하실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다시 한 번 기뻐하며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이 이 시대 모든 사람들, 특히 남북으로 갈라진 채 고통 받는 우리 민족과 소외되고 가난한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히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 예수 성탄대축일에
천주교서울대교구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



예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입당송 시편 2,7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도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제1독서 이사 9,1-6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화답송 시편 96(95),1-2ㄱ,2ㄴ-3,11-12,13(루카 2,11 참조)

◎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도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을 찬미하여라. ◎
- 나날이 선포하여라, 주님의 구원을. 전하여라, 겨레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들을. ◎
-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쳐라. 들과 거기 있는 것들도 모두 기뻐 뛰고, 숲의 나무들도 모두 환호하여라. ◎

-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주님께서 오신다, 세상을 다스리러 주님께서 오신다. 주님께서 누리를 의롭게, 민족들을 성실하게 다스리시리라. ◎

제2독서 티토 2,11-14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복음환호송 루카 2,10-11 참조

◎ 알렐루야.

-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니,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도다. ◎

복음 루카 2,1-14

〈오늘 너희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영성체송 요한 1,14

말씀이 사람이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도다.

예수 성탄 대축일 낮 미사

입당송 이사 9,5 참조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위대하고 현명한 사자라 불리리라.

제1독서 이사 52,7-10

〈땅 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화답송 시편 98(97),1,2-3ㄴ,3ㄷ-4,5-6(3ㄷ ㄹ)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세상 끝들이 모두 보았도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주님께서 기적들을 일으키셨도다. 주님의 오른손이, 주님의 거룩한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도다. ◎
- 주님께서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의 구원을 알리셨도다. 당신의 정의를 드러내 보이셨도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의 자애와 성실을 기억하셨도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세상 끝들이 모두 보았도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와 함께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와 노랫가락과 함께. 나팔과 뿔 나팔 소리와 함께,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제2독서 히브 1,1-6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에게 거룩한 날이 밝았으니, 모든 백성들아, 와서 주님께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세상에 내리셨다. ◎

복음 요한 1,1-18(또는 1,1-5,9-14)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영성체송 시편 98(97),3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세상 끝들이 모두 보았도다.